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 10회

유지웅, 신의 색소폰 동호회, 박시종, 박승매, 故김평묵

기획특집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생생현장 흑산도 홍어썰기학교

겨울나들이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숲

신안 소식 1004섬



지난 호 & 다운로드

2022 겨울 Vol. 85



신안
햇빛연금
갺갺갺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2022년 12월 현재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신안군-발전소가 공동 참여해 지분을 갖고, 발전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민들에게 수익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2021년부터 분기당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당금의 별칭이 ‘햇빛연금’입니다.

● 신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2022년 주요 성과

2022.2.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선정
2022.2.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1 정책대상’ 우수상
2022.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백서>(총 3권) 발간
2022.11.	‘2022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현재 수익금 배당지역

지도읍 발전용량 100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2회 총 52~22만 원
2022년 3회 총 78~33만 원
조합원 2,174명 33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1.9.

사옥도 발전용량 50MW

주민 1인당 수익
2022년 3회 총 180~66만 원
조합원 401명 2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1.17.

안좌도 발전용량 96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144~48만 원
2022년 3회 총 108~36만 원
조합원 2,132명 28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9.11.

자라도 발전용량 24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204~68만 원
2022년 3회 총 153~51만 원
조합원 210명 2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19.9.6.

사치도 발전용량 26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3년 연간 600~300만 원
전체 주민 72명

장산도 발전용량 2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3년 연간 30~10만 원
전체 주민 1,523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11.19.

하의도 발전용량 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3년 연간 42~14만 원
전체 주민 1,681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1.14.

신의도 발전용량 25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3년 연간 408~136만 원
전체 주민 1,516명

임지도 발전용량 91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3년 연간 120~40만 원
전체 주민 3,214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8.10.

비금도 발전용량 30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3년 연간 204~68만 원
전체 주민 3,516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4.4.

증도 발전용량 1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3년 연간 444~148만 원
전체 주민 1,460명

2023년 10월부터 수익금 배당 예정

병풍도 발전용량 2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156~52만 원
전체 주민 304명

고이도 발전용량 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348~116만 원
전체 주민 214명

마산도 발전용량 4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30년 연간 600~520만 원
전체 주민 1,523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11.19.

2026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2030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 주민 수익금 배당 참여지분권리

	전입신고일~	1년~	2년~
만40세 이하	100%		
만50세 이하	50%	100%	
만50세 초과		50%	100%

● 신안 햇빛연금 문의 061-240-8774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발행 2022년 12월
 발행처 전라남도 신안군
 편집 기획홍보실
 주소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전화 061)240-8360~5
 팩스 061)240-8575

표지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숲과 신안 바다.
 촬영 오종찬

(재)신안군장학재단 후원 안내
061-240-8777

신안군 귀농·귀어·귀촌 안내
061-240-4126
shinan.go.kr/home/refarm

02	신안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05	2022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⑩ 전남체육고 1학년 육상선수 유지웅 신익면의 소금 같은 신익면 색소폰 동호회 신안군 초대 군의원 박시중 퍼플섬 알리는 보랏빛 여인 박승매 지도읍 두류단의 주인공 김평묵 신안갯벌의 보물 신안빨낙지
26	섬 이야기 ②섬과 물 산에 나무를 심을수록 고기가 많이 잡힌다
30	생생현장 흑산도 홍어썰기학교
36	겨울나들이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숲
42	신안뉴스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외
46	신안장학재단 소식 169명에 하반기 장학금 지급 외
48	기획특집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현장스케치
58	군수편지 행복을 만드는 여덟 가지 정책들



전국체전 육상 ‘금메달’ 다음 꿈을 향해 질주!

신안 만인보 1

비금도 출신 전남체육고 1학년 유지웅 학생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전남체육고
실내 체육관에서.

17세. 전남체육고 육상 단거리부. 고향은 비금도. 체육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3 때 전남체중으로 전학했다. 체고 진학 후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해 첫 금메달을 땀다.

비금도에 살 때는 잘 몰랐다. 주말마다 집에 가보니 알겠더라. 우리 섬에는 아름다운 곳이 꽤 있다. 하트해변, 명사십리해변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 어렸을 때 내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고향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 좋다.

내가 다니는 전남체육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주말이 되어야 집에 갈 수 있다. 금요일 오후 연습까지 마치고 목포북항에서 배를 탄다. 1시간 40분 걸려 비금도에 도착하면 부모님이 늘 마중 나와 계신다.

집에서는 ‘방콕’을 선호한다. 한 주간 열심히 운동했으니, 주말만큼은 방에 콕 틀어박혀 쉬고 싶다. 핸드폰 하며 놀다가 한숨 자고 또 놀고 그런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형제섬 도초도에 있는 도초고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 최근에 한 친구가 “금메달 축하한다”고 말해 주었다. 고향 친구들이 내 소식을 알고 기뻐해 주니 더 좋았다.

나는 2022년 10월에 열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땀다. 종목은 육상 1600m 계주였다. 함께 땀 팀 4명 중에 나는 두 번째

순서로 뛰었다. 내 차례에서 선두와 격차가 벌어졌는데, 다음 차례의 선배들이 금세 따라잡아 주셨다. 좋은 팀 덕분에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이날 우리는 부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내 꿈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선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중3 때 전남체중으로 전학을 왔다. 고등학교에서도 체육을 전공한 뒤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하고 싶다. 가장 자신 있는 달리기를 택했고 고1 때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자신감이 생긴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나의 롤모델인 체육 선생님을 만났다. 체육 과목을 재밌게, 잘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점심시간, 방과 후를 이용해 학생들과 놀아주시며 허물없이 대화했다. 체육 과목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선생님처럼 학생들과 잘 지내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체육 선생님이 되려면 운동도 잘해야 하지만,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내신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 될 것 같다. 수능 준비도 중요하다. 기숙사 생활의 좋은 점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다. 공통 관심사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다.

비금도에서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집과 우리 집 거리가 멀어서 아쉬웠다. 동네에 또래 친구가 없다 보니, 주로 누나랑 집에서 보드게임과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놀았다. 부모님은 겨울에 섬초 농사, 여름엔 벼농사로 바쁘시다. 누나는 지금 대학생인데, 비금도를 떠올리면 누나와의 추억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가족들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다. 부모님은 바쁘신 중에도 가산항에 매주 나를 마중 나와 주시니, 집에 가는 길이 늘 행복하

다. 금메달 땀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쿨하게 한 마디뿐이셨다. 그래도 나는 부모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겨울은 동계훈련 시즌이다. 그전까지 오전에 수업을 받고, 오후에 운동을 했다면 동계훈련 기간에는 오전과 오후 모두 운동을 한다. 방학의 여유는 없지만, 더 나은 실력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다. 우선 내 목표는 부상 없이 훈련하는 것이다. 다치면 훈련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내신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언젠가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될 그 날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 

정리 김우리 사진 김현

+

전남체육고 육상 단거리부의 ‘금빛 질주’

유지웅 학생은 지난 10월 열린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해 육상 1,6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약칭 ‘전국체전’이라 부르는 이 경기는 국내 체육대회 중에서 위상이 가장 높다. 유지웅 학생이 속한 전남체육고 육상 단거리부 11명은 이 경기에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단일 경기로 역대 최다 메달 수다. 학생들은 앞서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제22회 한국U20육상경기선수권 및 제13회 한국U18육상경기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특히 유지웅 학생이 소속된 1,600m 혼성 계주 팀이 고등부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다. 전남체육고는 고등부 단거리 계주에서 전국 최강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의도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신안 만인보 2

신의면 색소폰 동호회

2018년 초에 결성한 신의면 주민들의 색소폰 동호회.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색소폰을 배우고 공연과 강습을 펼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2명이다.



신의도 염전에 선 동호회원들. 왼쪽부터 강주등, 이승철, 장효숙, 김현매, 박세관 씨.

신안군에 아이돌그룹이 있다. 이들이 무대에 오르면 행사 분위기가 180도 바뀐다. 관객들은 번쩍이는 악기에 먼저 눈을 빼앗긴다. 까딱까딱 무심히 발을 구르다가 절정에 다다른 듯 몸을 뒤흔트는 연주자의 동작에 넋을 잃는다.

소리는 또 어떨까. 굵고 끈적한 악기 음이 섬마음을 순식간에 딴 세상으로 바꾼다. 섬사람들의 반응은 자동 반사다. 하나둘 일어나 무대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한

참이나 춤판이 이어진다. ‘나도 배우고 싶다.’ 춤을 마친 이들이 탄성처럼 뱉는 말이다. 무대 위의 저 빛나는 대열에 끼고 싶다는 것일 터. ‘신의면 색소폰 동호회(회장 전치홍)’ 회원들은 그렇게 섬사람들이 닮고 따라서 하고 싶은 우상이 된 지 오래다.

동호회 회원들은 신의면 노인의날, 신의면민의날, 삼도면민의날 무대에 섰다. 연말 학생들이 마련한 신의초 학예회, 신

의중 대봉제에도 초대받았다. 배를 타고 나가 신안군 직원가족한마당 체육대회에도 두 차례 초청받아 공연했다. 코로나19로 여러 행사가 주춤해지기 전까지 신안군 행사의 단골 연주자들이었다.

“2018년 5월 신의면사무소 앞에서 첫 연주회를 열었어요. 3개월 배운 실력을 묵히지 말고 외부에 알리자는 취지였죠. 동호회원 가족과 면민을 포함해서 40여 분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민이 모

인 일은 신의면에서 아주 드문 일이었죠. 당시 7명이었던 회원들이 한 곡씩 연주하고 합주도 했어요. 어르신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춤을 댔어요. 가족과 주민들이 과일과 떡, 홍어와 돼지고기까지 장만해서 완전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동호회 강주등 총무는 이날을 초보자들의 무모한 공연이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공연을 보러온 주민들의 호응만큼은 프로급이었다고. 음 이탈로 소위 ‘빡사리’



라 불리는 ‘스퀴(squeak)’도 많이 났는데,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즐겼단다.

이 공연이 있기 전인 그해 봄 신의면 사람들 몇몇이 모였다. 모두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데가 없었다. 신안군에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신안군에서는 목포의 김성권 색소폰 강사를 보내줬다.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간씩 신

의면복지회관에서 수업이 이어졌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신의면 색소폰 동호회를 만들었다. 지금은 회원 수가 12명까지 늘었다. 염전 대표에서 부면장, 보건소 간호사, 목사, 주부, 운수업자까지 직업군도 다양하다. 한 자리에 함께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색소폰을 배우고 연주하는 열정만큼은 매한가지란다.

색소폰은 주민의 삶을 많이 바꿨다. 장효숙 회원은 색소폰을 전공하기 위해서 2020년 호남신학대학 음악학과에 들어갔다. 박세관 목사는 색소폰 실용음악 강사 자격증도 땀다. 그는 편곡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이제는 회원들을 위해 색소폰 악보 제작, 지휘, 연습도 도맡아 하고 있다.


주부인 권현하, 김미순 회원은 색소폰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 집안일을 하다가 짬짬이 부는 악기가 스트레스를 풀어준

다고 한다. 홍철기 회원은 딸이 선물로 사준 악기를 묵혀놨다가 올해 가을부터 레슨을 시작했다.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러온 경력이 있지만, 쉰 살 넘어 색소폰과 함께 시작한 음악공부가 새롭다고.

박 목사를 중심으로 회원들은 재능기부에도 열심이다. 박 목사의 교회에서는 주민 색소폰 강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신의초에서도 강습 요청이 들어왔다. 소금 생산과 농사일이 뜸한 가을이면 매년 학교에서 학생과 주민, 교사를 대상으로 색소폰 교실이 열린다.

동호회원들의 새해 바람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색소폰 연주회를 1년에 한 번씩 여는 일이다. 여기저기 행사장에 불려다녔지만, 정작 자신들의 무대는 첫째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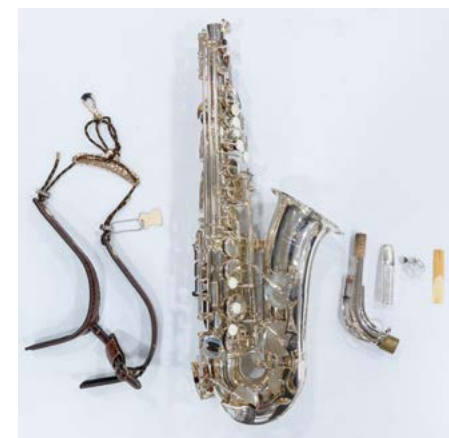
번뿐이었다고. 신의면과 다리로 연결된 하의면 주민에게도 동호회의 문은 열려 있다. 지금 이들은 즐거운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색소폰은 연습을 할수록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악기여서 나를 게으르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박 목사는 색소폰과 동호회가 ‘소금’이 되길 바란다. “사람은 소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신의도가 소금 섬이잖아요. 우리 동호회도 신의도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색소폰을 매개로 신의도 사람들을 하나둘 연결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신의도를 살아있는 생명의 섬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정리 노혜경 사진 오종찬

+

박세관 회원이 알려주는 색소폰



색소폰은 (사진 왼쪽부터) 넥스트랩, 바디, 넥, 마우스피스, 리가춰(ligature), 리드(reed)로 분해된다. 바디는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키와 컵, 나팔 모양의 벨,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U자관으로 구성돼있다. 마우스피스에 갈대로 만든 리드를 끼우고 리가춰로 고정하면 다음 불면 U자관을 통과한 공기가 벨을 울리며 소리를 낸다. 이때 손가락으로 키와 컵을 누르거나 떼면 서로 다른 음을 낼 수 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무거운 색소폰의 하중을 어깨로 분산해주는 넥스트랩이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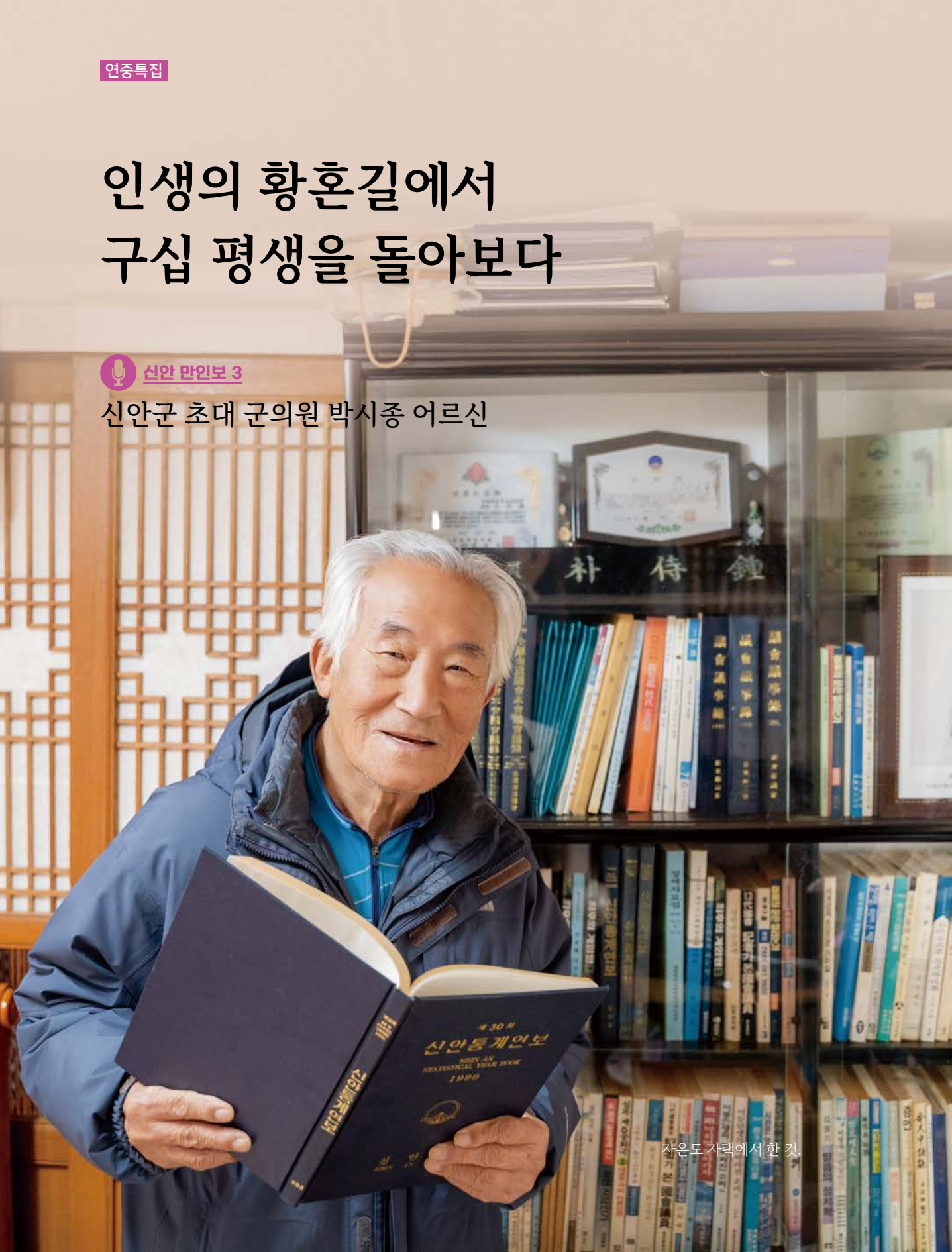


삼도 면민 노래자랑 공연(위)과 신의초 색소폰 강습.

인생의 황혼길에서 구십 평생을 돌아보다

신안 만인보 3

신안군 초대 군의원 박시종 어르신



자은도 자택에서 한 것.

91세. 결혼 후 고향 자은도 고장리에서 6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신안군 초대 군의원, 2대 신안농협조합장,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 제12대 지회장을 역임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셨던 양조장이 잘 되었다. 덕분에 나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학교 다니기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부모님 뒷바라지로 무사히 학교에 다녔다. 목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도 갔다.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에서 수학했다. 지금은 경영학과라고 부르는 상학과 전공이다. 셈하는 공부를 해서 인지 그 무렵부터 사업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

졸업 후 혼인을 기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자은도에서 살고 있었다. 육지와 섬을 오가던 나와 만나 오래 연애했다. 가장이 되자 밥벌이가 필요했다. 양식 백합을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나의 사업 스토리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백합 60포대를 배에 싣는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옮기는 도중 며칠이나 비가 내려 백합이 몽땅 상하고 말았다. 물건을 내려 놓지도 못하고 회수했다.

실패하려고 벌이는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착수한 사업마다 결과가 아쉬웠다. 그래도 섬에서 키운 농산물을 육지로 실어 나르는 트럭 운수업을 가장 오래 했다. 하지만 역시 돈을 벌진 못했다. 지금

도 아내는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을 쉰다. “공부와 실체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사업을 하던 중에 대학원까지 진학했다.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관리자과정을 1기로 수료했다. 공부할 때는 좋았다. 실전은 또 다른 것이지만.

이제는 나도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저 몸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한 아내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많이 늦었지만, 몇 년 전부터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있다. 밥은 못 지어도 설거지는 전적으로 내 몫이다. 아내가 그릇을 깨끗이 닦아낸다고 칭찬해준다.

그래도 돌아보면 내 평생 뿌듯한 일들이 꽤 있다. 30여 년 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가 열렸다. 나는 제1대 신안군 군의원이 됐다. 그때 고장리에 우물을 팠다. 물이 귀할 때라 우물 덕분에 부락 사람들이 모두 편해졌다. 또 이때 자은면 청사를 좋게 지었다. 2대 신안농협조합장을 지낼 때는 낙후된 조합 건물을 옮겨 지금의 위치에 새로 지었다. 그곳들을 지날 때면 여전히 기분이 좋다.

내 고향 자은도가 잘 되는 게 뿌듯하다.

특히 우리 마을 고장리에 애정이 크다. ‘옛 고’자에 ‘마당 장’자를 쓸 만큼 유서가 깊은 지역이다. 과거 면사무소 소재지여서 변화했다. 사람들이 200가구 넘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180가구 이상 살고 있다.

군의원, 농협조합장은 딱 한 번씩 했다. 사회적 책무는 여러 사람이 나눠야 좋다고 생각한다. 나 한 사람이 오래 해버리면 후배들이 올라올 수 없다. 그래도 내가 필요한 역할이 있어서 나서야 할 때는 나서곤 했다. 마지막 사회적인 직함은 10여 년 전에 얻었다.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 제 12대 지회장을 맡았다. 당시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 경기장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곳은 내가 지금도 자주 운동을 하

러 가는 곳이다.

취미로 게이트볼을 즐긴다. 구순이 넘었지만 허리가 꼳꼳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놀란다. 내 건강 비결을 묻는다면, 잘 먹고 잘 자는 것. 거기에 더해서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오래전부터 오토바이를 탔는데, 지금도 다른 교통수단보다 오토바이가 편하다. 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움직이려나.

세월이 흘러도 나와 아내에게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다. 장성해서 서울, 광양에 사는 우리 7남매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이 아버지의 바람은 이것 딱 하나다. *1004*

정리 김우리 사진 김현

+

박시종 어르신의 장수 비결, 게이트볼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자은면 송산리 545-7)을 즐겨 찾는다. 별이 좋은 날에 맞춰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노인들이 즐기는 대표 스포츠인 ‘그라운드 골프’와 ‘게이트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잔디가 깔려있다. 이곳에서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람은 30여 명이다. 게이트볼은 공을 땅에 세워진 사각형 모양의 작은 문으로 통과시키는 경기다. 경기 규칙이 쉽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어 중장년층의 생활 스포츠로 인기가 좋다. 박시종 어르신은 80대에 게이트볼을 시작했다. 한 번 경기장을 찾으면 공을 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 삼매경에 빠지면 2-3시간이 금세 가버린다. 즐겁게 대화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르신의 건강 비결이다.



손주 돌잔치 때 안사돈이 멀리 간 이유

 신안 만인보 4

퍼플섬 알리는 보랏빛 여인 박승매 씨



퍼플 정장을 차려입고 퍼플벽화 앞에 선 박승매 씨.

62세. 안좌에서 나고 자라 젊은 시절 서울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안좌로 돌아왔다. 농사일이 많은 그는 늘 퍼플 옷을 입고 다닌다. 안좌 안팎을 넘나들며 퍼플섬과 퍼플교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유명하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손주 돌잔치가 있었다. 안좌 행사가 끝나고, 시간이 없어 퍼플 정장을 그대로 입고 서울로 갔다. 내 옷차림을 본 아들이 난감해했다. “엄마가 너무 튀니까 장모님 옷이 완전 죽어버리는데요.” 그래서인가, 안사돈은 내 옆에서 돌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목포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은 한술 더 떴다. 내 퍼플 정장을 보고 딸이 말하길, “엄마, 연예인이야?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 연예인병 걸리겠어요.” 퍼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고 행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내 퍼플 신발이 너무 예쁘다며 어디서 샀냐고들 묻더라.

정장 4벌을 포함해서 퍼플 옷이 10벌 정도나 되려나. 모자 4개에 신발도 4켤레다. 평소에는 퍼플 티나 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안좌에 행사가 있으면 정장을 차려 입고 나간다. 내가 퍼플로 단장하면 이젠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안다. 안좌에 행사가 있다는 걸.

안좌 남강리에서 5남 2녀의 셋째로 태어났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회사에 다녔다.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이 힘들

었다. 엄마가 편찮으시단 연락에 스물한 살에 다시 안좌로 왔다. 5년 동안 어린 동생들을 돌보다 스물여섯 살에 남편과 결혼해 쪽 여기 소곡마을에서 살고 있다.

선을 보러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게 생겨서 결혼했다. 근데 이렇게 농사일로 뼈 빠지게 고생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내겐 너무 잘해주는 신랑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살면 좋겠다.

주부에 농사일이 바쁘지만 안좌 주민자치위원과 여성단체 회원 활동도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안좌 노인대학에 나가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간식도 준비해 나눠드린다. 안좌에서 벌어지는 봉사활동에는 다 참여하려 노력한다. 물론 퍼플 옷을 입고.


퍼플 옷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부터 입기 시작했다. 퍼플섬 행사에서 신안군이 퍼플 색상을 특화한 것을 보았다. 그 색깔이 참 예뻐다. 살기 좋은 내 고향 안좌도를 널리 알리려는 마음에 곧바로 목포로 나갔다. 퍼플 정장 한 벌과 구두와 모자까지 산 게 시작이었다.

그렇게 마련한 퍼플 옷을 입고 한 행사에 나갔다. 화려한 차림에 사람들 시선이 다 내게 쏠렸다. 10년은 더 젊게 보인다고 다들 칭찬했다. “너, 갑자기 너무 변한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퍼플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퍼플섬을 홍보하고 다녔다. 부산에 사는 사촌 여동생 내외는 내 소개로 가까운 친구들 네 쌍과 퍼플섬에 다녀갔다.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언니, 너무 좋아서 나 다음에도 또 올래.” 라고 했을 때 뿌듯했다.

얼마 전까지 목포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는 안좌에 그 유명한 퍼플섬이 있어요. 한번 놀러 갔다

오세요들. 거기 매점서 우산도 양산도 티셔츠도 좋으니 퍼플을 하나씩 사서 사진도 찍어보세요.”라고 권했다. 그랬더니 다녀와서 너무 예쁘다고, 고맙다고 하더라.

퍼플교가 생기고 안좌가 많이 변했다. 관광 차량이 늘었고, 세계에도 알려져서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 퍼플교 근처에는 젊은 사람들도 꽤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관광객이 여기 와서 밥 먹고 놀다 가니 지역경제도 잘 돌아간다. 날마다 퍼플 옷을 입고 다니는 보람을 느낀다. 안좌에서 키운 비트, 콜라비, 자색양파, 고구마, 감자 같은 퍼플색 농산물로 차려진 음식이 나오면 더 좋겠다. 

정리 노혜경 사진 오종찬

+

비싸고 귀했던 천연 퍼플 안료



박승매 씨의 퍼플 옷들.

다음은 ‘신안 그림책 아일랜드 레지던시 사업’으로 지난 12월 안좌도에 머문 김환영 그림책 작가가 들려주는 퍼플 이야기다. “그림이 수채화냐 유채화냐, 또 물의 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빨강 60%에 파랑 40%를 섞으면 퍼플 색을 얻을 수 있다. 과거 퍼플은 희소성과 진입장벽 때문에 가격이 비쌌다. 천연 퍼플 안료는 조개 분비물에서 추출하는데, 1g을 얻으려면 900개 정도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한다. 비싸고 귀했던 퍼플은 예부터 왕과 귀족의 옷을 염색하는 데 쓰였다. 고대 로마에서는 법으로 퍼플 옷을 입는 걸 금지하기도 했다.”

지도 두류단의 주인공 학자 김평묵

 신안 만인보 5

지도읍 유배인 김평묵(1819~1891)



지도읍 두류단의 오선비와 유래비
전경과, 김평묵을 기리기 위해 두
류산 정상부에 세진 '중암유탁' 바
위 글씨(작은 사진).

조선 후기의 학자. 경기 포천 출신. 1881년 척양·척왜의 소를 초안하여 왕의 노여움을 사 지
도읍으로 유배되었다. 1882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풀려났다.

섬 지명은 섬의 외형을 기준으로 색이나
동물 모양과 관련하여 붙여진 경우가 많
다. 반면, '지도(智島)'의 명칭은 좀 독특
하다. 지혜를 상징하는 '지(智)'가 섬 이름
에 포함되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
는 섬'이라는 지역민의 자부심이 반영되
어 있다. 그래서인지, 중·고등학교의 이름
에도 '지명(智明)'이라는 명칭이 사용되
고 있다. '지혜를 밝힌다'는 의미이다.

지도는 신안군의 섬 가운데 조선시대
의 유학적 전통이 잘 남아 있는 지역이
다. 그러한 전통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
목되는 인물이 유배인 김평묵(金平默,
1819~1891)이다.

지도읍에 서당 '두류강당' 열고 주민 교육, 호남 문인들과 교류

김평묵은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호는 '중
암(重菴)'이다. 화서(華西) 이항로의 사상
을 이어받아 최익현(1833~1906)과 함께
근대 개항기에 위정척사를 주장한 대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81년에 이만
손 등이 올린 '만인소(萬人疏)'를 격려하
는 편지를 보냈고, 서양과 일본을 배척해
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러한 이유로 1881년 10월 지도로 유
배되어 1884년까지 머물렀다. 김평묵은
지도 유배 생활 중에 스승인 화서의 학맥
을 섬마을에 전파하였다. 당시 지도에 형
성된 김평묵의 학풍은 지도향교를 중심
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김평묵은 배를 타고 윤랑포(尹郎浦, 현
신안중공업 조선소 자리)를 통해 지도에
들어왔다. 당시 윤랑포는 지도의 관문이
되는 중심 포구였다. 구전에 의하면 섬 주
민들은 김평묵을 매우 환영하였다. 죄인
신분이었지만, 이미 그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유배 생활의 주 장소는 지도 백
련마을 일대였다. 유배 초기에는 지도진
의 동쪽 주현구(朱見九)의 집에 잠시 머
물다가, 서쪽 백련마을에 있는 정천종(鄭
千宗)의 집으로 적거지를 옮겨 정착했다.

유배 생활은 매우 힘들었지만, 김평묵
은 적극적으로 섬사람들과 교류했다. 그
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인사들이 찾아와 가
르침을 청했다. 김평묵의 거처는 단순히
서당을 열어 동네 학동들을 지도하는 수
준을 넘어서 호남의 문인들과 함께 학문
을 논하는 장소가 되었다. 일명, '두류강
당'이라 불리었다.



김평목이 머물렀던 지도 두류산 일대. ©신안군



김평목을 기리기 위한 두류단제 모습.

1908년에 발간된 <지도군지>에는 두류강당(頭流講堂)이 “군의 서쪽 50리에 있는 두류산 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평목 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1901~1907)에 지도에 유배 온 김윤식은 지도에 중암의 학풍이 형성되어 있다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백련마을에는 옛터만 남아 있다.

지도 주민들, 김평목을 매개로 섬의 지적 정체성 확립해

흥미로운 점은 김평목이 해배되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김평목을 추모하는 지도 사람들의 열기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지

도 두류산에는 김평목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대표 사례는 ‘중암유탁(重菴遺蹟)’ 암각과 ‘두류단(頭流壇)’이다.

‘중암유탁’ 암각은 1893년에 조성되었다. 이 암각은 김평목의 제자였던 백련마을 나유영(羅有英)이 최익현의 요청을 받아 만든 것이다. 나유영은 1891년 중암이 세상을 떠나자 최익현을 찾아가 그에게 배움을 청했고, 최익현은 ‘김평목의 제자는 곧 자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문도로 받아들였다. 최익현은 지도 유배 시절 김평목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나유영에게 김평목이 거닐었던 두류산에 ‘중암유탁’ 글씨를 새길 것을 권하였다.

이후 두류산 중턱에 김평목과 선현들을 기리기 위해 두류단(頭流壇)이 조성되었다. 1901년에 단이 만들어졌고, 1916년에 삼선생비가 세워졌다. 먼저 학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항로·기정진·김평목을 배향하기 위한 단비를 세웠고, 후

에 사상적 뿌리가 같은 최익현과 김평목의 제자였던 나유영을 추가 배향하여 현재의 오선비 형태가 되었다.

섬 주민들은 두류단에 정성을 쏟았다. 이는 유배인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김평목을 매개체로 섬 주민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실제 처음 조성되었을 때는 제사를 지속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두류단제’를 모시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났다. 지도향교에 보존되어있는 <두류단실기(頭流壇實記)>(1925)에는 제를 올리는 유생 185명의 명단이 담겨 있다.

흔히, 유배인들이 섬에 들어와 살면서 지역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김평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 섬 지역 지적 전통의 수준, 유배인과 섬사람들의 교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섬 주민들은 그와의 인연을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외부와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지도향교를 출입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두류단제가 유지되고 있다.

김평목의 유배 이야기와 관련 유적은 섬마을 유학의 존재와 독특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보다 널리 알려지고, 관련 유적이 탐방코스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004](#)

글·사진 최성환(목포대 사학과·도서문화연구원 교수)

+

김평목의 학풍을 계승하는 지도향교

조선시대에 마지막으로 건립된 섬마을 향교이다. 향교는 조선시대의 공립교육기관으로 유학교육과 공자를 비롯한 선현을 배향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 지도향교는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도군이 신설되자 일군일교(一郡一校)의 원칙에 따라 성균관과 향내 유림의 발의로 창설됐고, 지도읍 봉정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김평목의 학풍이 이곳 지도향교를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다. 인근 두류단 유적과 함께 지도읍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1984년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넘치는 기운을 줄테니 내 삶터도 좀 지켜주게나

신안 만인보 6
신안빨낙지

갯벌에서 맨손 낙지잡이를 하는 모습. 필요 장비는 망태기와 고무장화, 가래삽으로 단출하다. ©신안군

신안군 갯벌에 사는 빨낙지는 부드러운 식감이 으뜸이다. 신안의 800여 어가에서 연간 458여 톤의 낙지를 생산한다. 밀물 때 주낙배로 잡고, 썰물 때는 맨손으로 잡는다.

집·돈·차 자랑하면 속물이라던데. 집 자랑부터 해야겠네. 내가 사는 집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인 지질시대 끝자락 홀로세(Holocene)에 지어졌어. 넓이는 11만86ha고, 40m까지 깊은 곳도 있지. 세상에 이렇게 오래되고 넓은 집이 어디에 있겠어. 어때, 자랑할만하지.

작년 여름에 내 집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어. 들어봤을 거야. ‘한국의 갯벌(Getbol : Korean Tidal Flat)’이라고.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순천·보성 갯벌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내가 사는 신안갯벌이 전체에서 85%나 차지해.

한국의 갯벌은 나를 포함해 2,150종의 생물이 살아서 세계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한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여서 “멸종 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했어.

신안갯벌 안에서도 나는 펜트하우스에 살지. 먹이사슬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거든. 최종포식자인 내가 많다는 건, 다른 많은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란 거 아니겠어. 청정한 갯벌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내 몸은 늘 힘이 넘쳐.

내 삶은 달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갯벌에 사는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물이 빠지면 갯벌 속에 숨어야 해. 하루 꼬박 12시간이야. 물이 들면 나가서 새우·게·굴·조개나 작은 물고기 같은 것들을 잡아먹지.

신안사람들은 빨낙지인 나를 ‘빨낙자’라고 불러. ‘효자’라고도 부르고. 나 잡아 팔아서 키워낸 신안의 아들딸들이 술잔해서 그럴 거야. 푹푹 발이 빠지는 갯벌 위에서 까실한 바닷바람 맞아가며 나를 캐내는 일이 여간 고생스러운게 아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예부터 사람들은 나를 원기(元氣)의 대명사로 불렀어. 익기양혈(益氣養血), 기를 더하고 피를 맑게 해 준다는. 조선 실학자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는 ‘소 중에 마르고 쇠약해진 놈에게 석거(石距, 낙지) 네다섯 마리 먹이면 바로 건실해진단다.’라고 적을 정도였어.

지금은 옛날처럼 소로 농사를 짓지 않아서 없어진 풍경이지. 사람 먹을 것도 귀한데, 소에게 나를 줄 리도 없고. 그러고

보니 ‘바위에 걸터앉은’이라는 뜻의 석거라는 말이 거슬리네. 아마 갯벌보다 좀 더 깊은 바다에 사는 낙지를 보고 이름을 지은 거 같아. 그 녀석들은 가끔씩 갯바위에서 놀거든.

그 녀석들과 나 빨낙지는 차원이 달라.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낙지들은 높은 수압을 견디려고 몸이 단단하지만, 나는 갯벌을 여기저기 헤쳐 나가야 해서 부드럽게 몸을 단련했거든. 무기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의 영양분을 흡수한 몸은 또 얼마나 옹골차겠어. 사람들이 나를 사려고 몇 배나 비싼 값을 치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은 나를 회·국·어 포·소금구이로 즐겼나 봐. 요즘엔 탕탕이·

연포탕·볶음이란 말이 사람들에게서 자주 오르내리더군.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짱이지. 살아있는 나 빨낙지와 사촌 낙지들이 K-푸드 통과의례 음식이 된지 오래야.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많이 잡았어.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들이 많이 줄었네. 몇 해 전부터는 금어기까지 생겼어. 올해는 6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이었지. 늦었지만 다행이야. 세계 유산이 된 내 집 갯벌처럼 사람들이 나도 아껴주면 좋겠어. 그래야 서로 공존하지 않겠어. 나는 늘 사람들에게 기운을 줬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내 집을 잘 지켜줄 차례야. *1004*

글 노해경

+ 맨손 낙지잡이

썰물이 되면 신안갯벌 곳곳이 빨낙지를 잡는 고수들의 일터로 바뀐다. 고수들은 평균 20~30년의 경력자다. 작업장은 마을 어귀에서 200~300m가량 바다 쪽으로 나간 갯벌. 다 똑같아 보이는 수많은 구멍에서 고수들은 ‘부룻’이라고 부르는 낙지 숨구멍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낙지가 숨을 쉬느라 뿜어내는 깊은 곳의 갯벌 색깔이 다르다고 한다. 2~3번의 삽질로 낙지의 통로를 찾아내고, 재빨리 10여 차례 주위를 더 삽질하면 낙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맨손 낙지잡이는 2018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됐다. 신안군은 맨손 낙지잡이 장인을 선발해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많은 구멍 중 낙지 숨구멍은 어디?

농어 건정 간국

꿀벌이 산벚꽃에서 꿀을 모을 때는

보듬을 것으로

감내해야 하는 뒷감당이 있다

말벌에게서 벗어나는 일은

독침에 살을 내어주는 뼈를

취하든가

뼈를 내어주고 목숨을 취하는

일이다

한 밤에 몇 번을 안아줘도

봄밤은 어찌 싸늘하던지

더는 안아줄 수 없어

마른 연애를 하고 싶은 날

새우젓만 넣고 끓인 건정이

육수 없이 쌀뜨물과 섞여도

첫 정을 해산하는 뽀얀

그리움만 할랑가

김옥중, 시집 <잡채> 중에서



지도읍 출신 김옥중 시인이 첫 시집 <민어의 노래>(2020)에 이어 두 번째 시집 <잡채>를 펴냈다. 한국인 최초 K-1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요리사로, 광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당 ‘지도로’를 꾸리고 있다. 신안 만인보 2020년 여름호에 소개됐다. 시 소재가 흥어, 풀치, 황석어, 왕새우, 게장, 준치, 어란 등 수산시장을 방불케 한다. 잡채는 이 모든 식재료를 아우르는 상징이랄까. 하응백 문학평론가는 ‘외롭고 쓸쓸할 때 시의 잡채를 드시라’고 이 시집을 권한다.



신안 만인보 2020년 여름호 때 김옥중 시인.

산에 나무를 심을수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② 섬과 물

지난 호부터 소재별로 섬 문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발간한 책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 중에서 열 가지를 요약 정리해 10회 연재하고, 매 회 신안 사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연재 순서는 섬과 바람-물-산-농업-어업-무인도-음식-공동체-유배-바닷길입니다.



물이 특히 귀한 섬에서는 장마 때 물을 가둬두고 농사에 이용했다. 자은도 두봉산 자락에 저수지들이 여럿이다.
©신병문

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이다. 청정한 수자원의 유무는 그 섬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섬 주민들은 부족한 수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궁리해왔고,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같은 독특한 농업구조 방식을 만들어냈다. 또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해 우물을 만들어 마을 공동으로 활용했다. 최근에는 해수담수화 시설 등 과학기술을 도입해 물을 공급하기도 한다. 산에 축적된 다양한 자양분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연안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산과 바다는 물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산과 바다를 잇는 매개체, 섬 하천

하천의 기능은 수량 조절, 토사유출 조절, 영양염의 흡수와 공급, 생물의 서식장소 제공 등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행한 하천환경 변화는 주로 수량과 토사유출 조절에 관심이 컸다. 그래서 하천은 숲-강-바다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 순기능을 잃게 되었다. 동시에, 숲과 바다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숲과 바다를 연결하는 하천 환경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하천은 상류와 하류로 나눌 수 없는 연속된 생태계여서, 상류에서 발생한 문제는 당연히 하류에 영향을 준다.

일본의 섬 어촌계에서는 식목일에 산에 나무를 심는다. 산에 나무가 울창해야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오랜 전통지식에 따른 것이다. 숲의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바다에 도달하면서 물고기의 자양분이 된다. 이처럼 섬 땅의 생태계



도초도의 산과 바다를 잇는 하천. ©최성욱

는 흐르는 물에 의해 바다와 연결된다.

섬 문화의 흔적인 구들장 논, 둠벙

섬 수자원의 형성은 섬의 형성과정, 지형, 지질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도는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도 있고 하천도 존재한다. 또 다양한 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저수지를 확보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 순환은 대기와 지각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산이나 지하수층에 모여 형성된 물이 지표나 하천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고, 바다에 모인 물은 증발을 통해 구름으로 만들어져 이동한다. 수증기가 가득한 구름은 육지에 비를 내리고, 그 물은 다시 숲이나 경작지에 모여 생물의 성장을 돕는다.

섬의 물 순환은 육지와 유사하지만, 해양성 특징을 가진 데다 육지보다 면적이 작아 대기와 지각에 의한 물의 순환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많은 섬들은 저수지나 지하수를 이용하며, 부족하면 외지로부터 별도의 물 공급을 받



곳곳에 둠병이 많은 비금도 들판. ©카카오맵

는다. 우리나라의 많은 섬들은 매립과 간척을 통해 토지를 확보했다. 이 토지는 논과 밭으로 활용되고 있어 물이 많이 필요하다. 산이 많은 완도 청산도는 물이 비교적 풍부해 일찍부터 농업이 활발했다. 청산도의 ‘구들장 논’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섬 농업의 대표 사례다.

신안군 대부분의 섬은 가뭄에 물 부족을 흔히 겪는다. 둠병의 역할도 한계가 있어서, 가뭄이 들면 관개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논 주변에 만든 물웅덩이인 둠병은 오랜 농경문화의 산물이다. 장마철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갈수기에 논에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둠병은 지역에 따라 덩병(경북), 둠뽕(전남), 둠병(경기, 충청, 경남), 고논(강원) 등으로 불린다.

섬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숙식에 사용하는 물 공급이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자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곳이 섬이기 때문이다.

먼 섬의 수자원 확보 해수담수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바닷물을 담수(민물)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기기도 한다. 해수담수화는 여러 방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해수를 가열하거나 발생하는 증기를 응축해 담수를 얻는 ‘증발 방식’과, 삼투현상을 이용해 해수를 반투막에 통과시켜 담수를 생산하는 ‘역삼투 방식’ 두 가지다. 역삼투 방식은 오염된 물에 압력을 가해서 필터를

통해 깨끗한 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신안군과 진도군 섬 지역은 현재 지하수 개발 방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용수의 한계가 있고, 가뭄대책에 큰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에는 현

재 62개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고 일일 생산량은 3,211톤이다. [1004](#)

출처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전라남도, 2020) 중 23-37쪽. 원글 작성자 홍선기

홍도 해수담수화시설과 내연발전소. 아래쪽은 해수담수화시설 내부.



망망대해의 섬이어도 물은 풍족 **홍도 해수담수화시설**

2022년 말 현재, 신안군 20개의 섬이 해수담수화로 물을 조달하고 있다. 그중 흑산면 홍도는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해수담수화시설이 건립된 곳 중 하나다. 1996년 경남 진해시 연도를 시작으로 1997년 3개 섬(충남 보령 고대도, 경남 거제 지심도, 신안 홍도)이 시설을 완공했다.

홍도 해수담수화시설은 1998년부터 역삼투압 방식으로 일일 25톤의 담수를 생산했다. 2010년 시설을 대규모로 증축하고 2013년부터는 일일 5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이때 홍도 2구마을에도 담수화 시설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했으나, 현재는 신안군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먼 바다의 섬이라도 물 걱정만큼은 옛날이야기가 됐다.

지역	시설년도	용량(톤/일)
홍도	1997	500
하태도	2009	30
가거도	2009	300
옥도	2009	30
영산도	2009	50
상태도	2010	20
재원도	2010	70
자라도	2010	100
마진도	2010	30
다물도	2012	100
평사도	2012	20
사치도	2012	30
신도	2012	20
만재도	2013	50
홍도 2구	2013	50
서소우이도	2013	50
당사도	2014	60
동소우이도	2015	15
율도	2015	10
막금도	2015	10
백야도	2015	10

신안군 2022년 현재

흑산홍어, 수요는 많고 썰 사람은 귀하다

흑산도 홍어썰기학교

그림책 1004섬 신안 아일랜드 원화-展

신안군이 '2022 신안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지난 호 신안소식 생생현장 소개)을 마치고, 그 결과물을 한 자리에 모아 순회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압해도, 하의도, 흑산도의 어린이들이 쓰고 그린 신안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2023.1.3.~1.9.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오픈 1.3. 오후 2시)
오전 10시~오후 7시 (수, 토 오후 8시까지)

1.11.~1.16.

서울

영등포 아트스퀘어 (오픈 1.11. 오후 2시)
오전 10시30분~오후 7시 (토, 일 오전 11시~오후 6시)

1.17.~3.2.

신안

하의도 웅곡선착장

3.3.~4.2.

고창

책마을 해리 (오픈 3.4. 오후 2시)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일만 개관)

주최 신안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신안군 문화도시지원센터

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협력 오픈아츠 머지, 문화지소 신안,
사단법인 라몽 지역자산함께나눔



현장 개요 신안군과 신안군관광협의회흑산면지회가 수산물 판매촉진사업의 하나로 2020년부터 흑산도에 '홍어썰기학교'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흑산홍어.



달인의 홍어 해체 “예술이다!” 한 편의 영화처럼 볼거리 넘쳐

홍어썰기 달인인 조형자 강사는 앞이 뽕뽕하고 날이 선 칼을 잡았다. 먼저, 수치(수컷) 홍어의 꼬리부터 잘라냈다. 이어 홍어를 코, 머리, 날개, 다리 순으로 해체했다. 통째로 아가미를 드러내고, 배의 경계선에 칼집을 내 껍질을 동그랗게 따냈다. 그리곤 홍어애 등 내장을 꺼냈다.

홍어 껍질과 뼈 사이로 칼을 넣어서 살을 발라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물 흐르듯 부드럽다가도, 단호한 칼질 세례에 코·볼·턱·배·꼬리·아가미의 살들이 도마 한쪽에 수북이 쌓였다. 뼈와 살이 붙어있는 부위는 칼로 탕탕 쳐서 먹기 좋게 다듬었다. 껍질은 쫄쫄한 묵, 뼈는 시원한 국을 끓이기 위해 따로 모았다. 버릴 데 하나 없는 홍어였다.

수강생들은 달인의 ‘홍어 해체쇼’를 단 한 장면도 놓치

지 않았다. 저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저장했다.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하는 이들도 있었다.

수업의 백미는 날개 썰기와 포장. 강사는 척추뼈를 중심으로 두 짝으로 분리된 날개를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인 폭 4~5cm의 덩어리로 잘랐다. 쇠 집게로 날개에 붙은 껍질을 벗겨내고 날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썰어내며 포장을 시작했다.

3~4mm 두께로 썰어진 날개살은 4~5점씩 홍어 전용 상자에 가지런히 놓였다. 홍어 포장의 핵심은 상자를 빈틈없이 채우는 것. 상자 절반이 날개살로 채워지더니, 나머지 공간은 미리 썰어둔 코·볼·턱·배 부위의 살들이 차지했다.

“예술이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찰기와 윤기 넘치는 분홍빛 홍어 한 상자에 침을 삼키는 이들도 적잖았다. 30여 분, 달인의 홍어썰기 시범 이후에는 수강생들의 실습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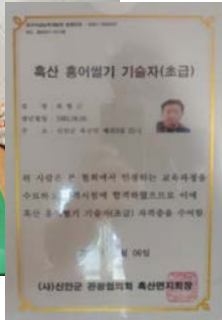
1 올해로 3회, 입학 경쟁이 치열한 흑산도 홍어썰기학교.

2:3 해체-썰기-포장을 마친 후 각자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수강생들.

4 홍어썰기의 달인 조형자 강사.



생생현장



홍어잡이부터 가공·판매, 관광·체험까지 6차산업의 물꼬 튼 홍어썰기학교

흑산홍어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썰 사람이 귀하다. 홍어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이면, 썰 사람이 없어서 있는 홍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서진 홍어썰기학교장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로 했다. 신안군의 도움을 얻어 2020년 흑산도에 홍어썰기학교를 열었다.

이름부터 남다른 이 학교는 한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언론의 집중 조명도 받았다. ‘홍어썰기로 연봉 8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목과 함께였다. 약간 과장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한 마리를 썰는 데 30~40분

걸리는 몇몇 달인들은 실제 이렇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흑산도 게이트볼장에서 제3기 홍어썰기학교 수료식과 자격증 교부식이 열렸다. 지금까지 홍어썰기학교를 졸업한 수료생은 49명이고, 홍어썰기 초급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은 32명이다. 홍어썰기학교의 인기에 고무된 흑산도 사람들은 곧 생길 홍어박물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홍어잡이(1차)에서 가공·판매(2차), 관광·체험(3차)까지 이어지는 홍어 6차산업의 산실로 홍어박물관을 꾸민다는 계획이다. 최서진 교장은 “홍어썰기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홍어로 산업을 일구고,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1004*

글 노해경 사진 신병문·오종찬



- 1 최서진 홍어썰기학교 교장.
- 2회 졸업생인 최형근 씨와, 그의 자격증.
- 포장의 관건은 빈틈없이 가지런히 담기.
- 4 낙찰받은 홍어를 포장 중인 최서진 교장.
- 5 신안군수협흑산도위판장의 아침 홍어 경매.



웅크린 등을 곧게 펴라고 권하는 꽃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 산책

압해도 송공산 자락 '1004섬 분재정원'에 애기동백 꽃이 만개했다. 신안군은 애기동백 개화기에 맞춰 '섬 겨울꽃 축제'를 열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시작한 축제는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신안군이 주력해온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 섬정원' 조성사업에서 압해도의 테마는 애기동백. 그 테마의 중심지인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숲을 걸어보았다.



개장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입장 마감 오후 4시. 하절기는 1시간씩 연장)

입장료 성인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1천 원 (단체 할인 있음)

주요 시설 애기동백숲, 분재원, 최병철분재기념관, 초화원, 미니수목원, 저녁노을미술관(월요일 휴관) 등

문의 061-240-8778



꽃이 만발한 애기동백숲길을 즐기는 관광객들.



‘그러니 당신도 잘 견디어 보게’

짙은 추위에 몸이 자동으로 움츠러든다. 나들이를 하려면 옷도 마음도 단단히 여며야 하는 계절이다. 춥지만 따뜻한 곳, 분주하면서도 고즈넉한 곳이 고른 이런 때,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에 간다.

신안군은 1004섬 분재정원 산기슭에 애기동백을 2만 주가량 심어놓았다. 활짝 핀 꽃들이 와글와글 떠돌고 있다. 꽃들의 수다 속에 놓인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간다. 꽃을 따라 기분도 점점 만개해간다. 어느 순간 애기동백숲 너머로 바다가 와락 펼쳐진다. 지주식 김양식장의 장

대들이 점점이 수놓인, 어민들의 바다밭이다. 애기동백과 다도해의 조화는 압해도가 품은 보물이다.

애기동백은 일반 동백보다 개화가 빠르다. 초겨울부터 거의 두 달 동안 꽃불을 밝힌다. 다른 점은 또 있다. 일반 동백은 꽃잎들이 원통처럼 피는 통꽃이고, 애기동백은 날장의 꽃잎들이 활짝 벌어지는 갈래꽃이다. 동백이 단아한 멋이라면 애기동백은 화사한 정취를 자랑한다. 활짝 열린 애기동백 꽃잎 위로 함박눈이 내려앉는다. 꽃잎들이 춥지 않을까? 그저 씩씩해 보인다. 애기동백꽃은 ‘그러니 당신도 이 겨울을 잘 견디라’고, 웅크린 등을 곧게 펴보라고 권하는 꽃이다.



1004섬 분재정원 곳곳에 마련된 쉼터들.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애기동백숲. 그 속의 동박새.

힐링의 선물세트, 1004섬 분재정원

1004섬 분재정원은 힐링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다. 애기동백을 비롯해 볼거리가 워낙 다양한 곳이라서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심심해 할 일이 없다.

지난 가을 노년의 부모님은 분재원에서 오래 머물렀다. 분재 하나 하나가 심오한 예술작품 같아서 빨리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하셨다. 20대 조카는 형형색색 초화원에서 인증샷을 찍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림 감상을 좋아하는 친구는 지난 봄 저녁노을미술관에서 눈호강을 했다.

분재정원이 자리한 송공산은 1996년에 산불

피해를 입었다. 신안군의 오랜 노력이 송공산의 표정을 행복하게 바꾸어 놓았다.

송공산 분재정원에 애기동백이 만개하면 그 꽃을 따라 동박새들이 날아든다. 연두색 옷에 흰 안경을 쓴 이 작은 새는 붉은 동백꽃에 머리를 들이밀고 꿀을 먹는다. 동백숲이 특히 울창한 흑산도에서는 과거 주민들이 동박새를 애완용으로 즐겨 길렀다. 나날이 울창해지는 압해도 애기동백숲도 동박새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저기 동박새가 앉아있다. 녀석이 행여 놀랄까 말소리는 쉼, 걸음은 살금살금. 더불어 행복한 애기동백숲에서 겨울 한파를 깨끗이 잊어버렸다. *1004*

글 이혜영 사진 오종찬·이혜영·신안군

희망이
섬쫓는
1004섬
신안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서 신안 사례 소개

지난 12월 10~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박우량 신안군수가 참석해, 한국을 대표해 신안군의 사례를 발표했다. 생물다양성 실천을 주제로 영향, 참여, 행동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박 군수는 참여 세션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생물권보전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신안군의 실천 행동을 소개했다. 신안군은 철새와의 공존을 위해 중간기착지 섬의 동식물 및 환경보호, 동식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민 대상 생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카본, 블루카본,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회의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함께 개최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 환경협약이며, 당사국총회는 2년 주기로 열린다.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에 들어선다

지난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에 따라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이하 갯벌보전본부)가 신안군에 들어선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는 갯벌보전본부 건립 최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다.

신안군은 갯벌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 갯벌의 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 2023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이 착수된다. 갯벌보전본부는 신안군 최초의 국가기관이다. 신안군은 보전본부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1,366억 원의 생산유발, 700억 원의 부가가치, 2,500여 명의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갯벌보전본부 건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혼신을 다한 지역 관계자와 주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갯벌보전본부는

신안갯벌만이 아니라 한국의 갯벌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안군은 서천갯벌, 고창갯벌, 보성-순천갯벌과 추가 등재할 9개 갯벌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퍼플섬,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지난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신안군이 ‘퍼플섬’으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그 비결을 널리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종 30개의 시책이 선정됐고, 그중 신안군은 컬러마케팅을 활용한 ‘퍼플섬’ 반월·박지도의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으뜸인 대통령상을 거머쥔 것.

퍼플섬은 이어서 지난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며 정부가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브랜드 관련 포상제도이다.

퍼플섬은 지난해부터 유엔세계관광기구 ‘제1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의 별 ‘본상’ 등 굵직한 수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신안군과 군민이 함께 가꾼 결실이 인정받는 일이어서 의미가 크다.



+ 퍼플섬 주요 수상 이력	
2022. 12.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국무총리상
2022. 11.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2021. 12.	유엔 세계관광기구 ‘제1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2021. 10.	한국 관광의 별 본상

희망이
섬쫓는
1004섬
신안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신안군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2회(월, 금)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제1회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신안군의 역점 시책인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 섬정원’ 조성사업 활성화의 일환이다. 주민 정원해설사가 신안군의 섬정원과 수목 자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방문객에게 품격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민 정원해설사는 자기 계발의 기회를 누리는 동시에 주민 중심의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기초 소양 과정으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심화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료생들의 정원해설사 민간자격증 취득이 목표다.

암태도에 신안소방서 개청

전남 신안소방서가 11월 11일 개청식을 갖고 신안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활동에 돌입했다. 신안소방서는 총사업비 약 76억 원을 들여, 암태도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암태도의 부지는 신안군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신안소방서는 섬과 갯벌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여건을 반영해 도서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선박과, 갯벌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소방서가 있음으로써 느끼는 주민들의 안정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신안소방서가 역할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안소방서

위치 : 암태면 승봉로 17(단고리) 문의 061-241-0900

비금도·도초도, 모든 노선에 전기버스 운행

12월 9일부터 서남문대교로 연결된 비금도와 도초도에 총 7대의 전기버스가 운행을 개시했다. 그동안 비금도와 도초도는 28개 노선에 7대의 공영버스(경유 연료)가 운행되고 있었다. 신안군은 전기버스 제작 구입비 15억 원을 투입해 이번에 모두 교체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경유 연료를 쓰는 공영버스 69대에 대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교체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버스 3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1대 도입은 승용차 131대분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

전국 최초 ‘해상풍력 안전 및 유지보수 교육센터’ 개소

지난 11월 29일 압해도에 신안 해상풍력 안전 및 유지보수 교육센터가 개소했다. 이 교육센터는 신안군과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가 협력해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티유브이슈드(TÜVSÜD)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 지난 1월 신안군과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세계풍력기구(GWO)로부터 4가지 필수 기초안전교육 과정을 인증 받아 풍력산업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센터는 지역주민에게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안군은 “전문인력 확보와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소방서



해상풍력 유지보수 교육센터.



신안장학재단 소식

신안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후원

학생 총 169명에 하반기 장학금 1억8천3백만 원 지급

(재)신안군장학재단은 지난 11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11월 25일 신안군 초·중·고·대학생 등 169명(우수대학생 59명, 내고장 진학 33명, 저소득 장학생 52명, 다문화가정 25명)에게 장학금 1억8천3백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장학생을 전원 선발했다.

박우량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재육성 장학금이 자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는 낙도 장학생 장학금 분야를 신설하고, 장학생 요건을 부모, 학생 주민등록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도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해야 선발요건에 충족된다.

+ 2023년부터 달라집니다.

낙도 장학생 장학금 분야 신설
대학생 장학생 선발요건 ‘신안군 주민등록’

2022년 9~12월 장학기금 총 2억4천478만 원 모여

지정기탁 해주신 분들

(주)신안천사김 65,000,000 증도 박형기·최연아 30,000,000 삼팔수산 강희인 10,000,000 우림수산유통 김선규 10,000,000 박우득 10,000,000 서해안장례식장 박주형 10,000,000 서울보증보험 목포지점 10,000,000 유한회사 신안군농약판매협회 10,000,000 팔금 이상배·이인숙 부부 10,000,000

하의 장명흠·제갈향덕 부부 10,000,000 형제수산영어조합법인 10,000,000 신안군청 6,000,000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 5,000,000 압해 오상철 5,000,000 압해읍 생활개선회 5,000,000 유한회사 떡이야 5,000,000 남신안농협 3,000,000 도초농협 3,000,000 북신안농협 3,000,000 비금농협 3,000,000 신안농협 3,000,000 압해농협 3,000,000 임자농협 3,000,000 천영란(신안군 농촌진흥과) 2,000,000 도초 박용철·김원심 2,000,000 김유석(신안군 해양환경안전협회) 1,250,000 권현오(신안군 농촌진흥과장) 1,000,000 자은 박상복 1,000,000 임자하나로베이커리 박종운 1,000,000 송현중(신안군 도시개발사업소장) 1,000,000 신좌일(신안군 섬발전진흥과장) 1,000,000

정기후원 해주신 분들

박성진(신안군 공원녹지과장) 최경자 고성민(신안군의회 사무과장) 김용수 최영택 강기춘 곽호남 김계형 김도남 양국진 장미희 정승일 최광영 최미 최상도 김민영 박정배 고은경 김대중 김대현 김상희 김완수 김은정 김현희 모현경 문지연 박부일 박수정 박효선 백미숙 장희웅 정승기 정영운 정창균 조영학 최미영 정은재 김명기 박미선 조항희

신안 장학기금 기탁하시려면

문의 (재)신안군장학재단 061-240-8777

후원계좌 농협 301-0165-0150-11 (예금주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



1004섬 신안 전 세계 섬문화를 연결하다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12월 8~9일 열려



지난 12월 8~9일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에서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이 열렸다. 신안군이 주도해 세계 섬문화의 다양성을 재발견하고 연대함으로써 섬 문화의 보존과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뜻깊은 행사의 현장을 간추려 소개한다.

정리 노해경 사진 오종찬·윤종운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1박2일로 열려
강연·워크숍·전시·공연·퍼플섬 탐방 등



세계 섬 대표들, '퍼플섬 의정서' 채택
신안에 국제네트워크 사무국 구성하기로



퍼플 깃발 아래 세계의 섬문화 연대하다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1박2일 스케치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은 신안군과 태평양관광기구(한국지사장 박재아),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가 공동주최했다. 이 포럼은 △섬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섬들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페인, 사모아, 인도네시아, 그리스, 마셜제도 등의 섬을 대표해 자은도를 찾은 포럼 참가자

들은 행사 첫날 ‘2022 퍼플섬 의정서’를 채택했다.(전문 수록 56쪽)

포럼 첫날 ‘섬문화 다양성’ ‘지속가능 관광’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여러 강연이 이어졌다. ‘기후위기 대응’ 강연에서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태평양의 문화들’ 사례를 발표한 크리스 코커 태평양관광기구 CEO는, 광활한 태평양을 개척해낸 섬사람들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




는 코로나19로 태평양 관광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다. 설상가상 기후위기로 섬이 가라앉을 상황에 처했지만, 청년들이 어딜 가든 태평양의 위대한 섬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

박재아 태평양관광기구 한국지사장은, 신안군과 태평양관광기구가 추진 중인 ‘섬대학 프로젝트_로빈슨 크루소 대학(가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아가 이 사업의 장기 목표가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태평양 도서국의 주민들을 신안군으로 이주·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 관광’ 강연에서는 박정하 신안군 관광대사가, 지난해 유엔세계관광기

구(UNWTO)가 세계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한 신안 퍼플섬의 사례를 전했다.

포럼 이틀째인 9일 열린 섬문화 워크숍에서는 세계 섬 사이의 교류 역사, 신안 섬의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해법 등이 제시됐다.

김성인 제주대 교수는 2013~18년 주피지대사로 일하며 서먹하던 한국과 피지의 관계를 풀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주도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병진 연구위원과 민현정 연구실장은, 새로운 인구개념인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등을 도입해 섬과 도시가 대립을 벗어나 공존과 화합의 관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워크숍을 마친 오후, 포럼 참가자들은 자은도에서 안좌 퍼플섬으로 자리를 옮겨 ‘신안섬 느끼기 투어’에 참여했다. 이 투어를 마지막으로 1박2일 동안의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이 막을 내렸다. 강연·워크숍·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이틀이었다.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을 열기까지

2022년 신안군은 ‘오로지 섬, 문화다양성의 보고’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을 유치했다. 문화의달 행사를 앞둔 신안군은 사전 국제행사로 세계인이 모여 섬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 태평양관광기구(SPTO, 한국지사장 박재아) 등이 가세해 탄력이 붙었다. 포럼 특별자문으로 올란도 페르도모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국장, 드웨인 벤틀리 사모아 관광청 총괄국장 등 세계의 여러 섬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제포럼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기초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정부 부처인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섬마을의 고유한 전통에 주목하자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주요 발언들

포럼은 섬문화다양성, 지속가능 관광, 기후위기 대응 등의 세 가지 주제로 펼쳐졌다. 발제자의 주요 주장들을 소개한다.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은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기회 창출에 나서자. 팬데믹과 지역갈등처럼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충격에 맞서 회복탄력성 있는 글로벌 섬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

—— 트레거 알본 / 주한 마셜제도 대사

지속가능 관광을 위해서는 첫째, 전통을 강조하라. 어업 같은 현지 전통을 관광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전통을 평가절하 하지만 관광객들은 좋아한다. 몰입의 경험, 관광지만의 특색을 원한다. 둘째,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현지 특산물 추천에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맛집 탐방 등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길 권한다.

—— 올란다 페르도모 / 스페인 마드리드관광청 국장

대륙이 섬인 것처럼 섬 또한 하나의 대륙이다. 한국은 유인도 464개가 각기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인류가 이룩한 창의적 결실인 '문화다양성'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바로 섬이다. 인류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룩할 기반이다.

—— 강재윤 / (사)섬연구소 소장

그리스 로도스 섬의 아스크레피온(Asklepieion) 마을은 지속가능 관광과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유명하다. 민간과 지역 공공부문 간의 공동투자, 문화정체성을 보여주는 음식·음악·춤·콘서트 등을 보여주는 행사가 그 비결이다. 아스크레피온 마을은 과거의 문화를 바탕으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혁신을 일으켰다.

—— 미카일 토노글로 / 전주대 교수

신안 퍼플섬이 유엔으로부터 세계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된 이유는 관-민의 원활한 소통, 창의적인 브랜드 개발,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 추진, 세계적인 갯벌자원과 보전 노력, 친환경 관광마을 운영, 지역 주민역량 강화 노력, 거주자와 관광객의 안전 확보 등이었다.

—— 박정하 / 신안군 관광대사

지속가능 관광은 동네 단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발리의 마을기반관광 프로그램은 '반자르'라는 마을 단위에서 출발한다.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지속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주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가능 관광을 이룰 수 없다.

—— 구스데 나마루파 / 발리 바둥주 관광청장

신안군과 태평양관광기구는 올해 '세계섬문화다양성 및 국제관광교류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섬은 기후변화 같은 초국적 이슈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지역이기에, 신안군이 능동적으로

앞장선다는 의미다. 먼저 글로벌섬리더를 양성하는 '로빈슨 크루소 대학(안)'을 열고, 세계 섬사람들이 모여 지속가능 관광, 기후위기 대응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 박재아 / 태평양관광기구 한국지사장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계되는 사람이다. 정주민구와 관계인구를 지역 재생과 운영의 주체로 삼아 지방과 도시가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관계인구가 정주민구로 이어지려면 직업, 교육, 주택, 가족요소 등 근본적인 인구이동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 김병진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해양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자. 이웃 연안국의 주민과 해양을 매개로 서로 교감하고, 대양에서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전 세계 연안국의 바다와 인문자료 수집·정리가 시급하고, 특히 태평양-인도양-대서양-남빙양-북빙양을 공유하는 상생의 청색경제(blue economy) 추진이 절실하다.

—— 권문상 / 적도해양포럼 회장



포럼 로고에 고래가 새겨진 이유는?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이모저모

포럼에 모인 세계의 섬사람들은 신안군민과 어울리며 다양한 섬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포럼에서 특히 이목을 끌었던 이야기를 간추려 소개한다.

☞ 포럼 로고에 고래가 새겨진 이유는

지금은 사라진 고래가 다시 돌아와 신안의 푸른 바다를 헤엄치기를 염원하는 신안 사람들의 바람을 담았다. 과거 흑산도 인근에 고래가 살았는데, 일제의 남획으로 고래의 씨가 말랐다고 한다. 신안 사람들은 떠나보낸 고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이번 포럼도 “섬의 보물과 같은 고래가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포럼 조직위는 전했다.



☞ 사모아에 0.5명의 한국인이 있다

‘우리는 어쩌면 한 가족이었을지 모른다’를 제목으로 사례발표를 한 제리 제임스 소포이툴라그(Jerry James Soipoitulagi Brunt) 주 사모아 대한민국 명예영사. 그의 한국 이름은 ‘김수남 주니어’다. 부산의 작은 어촌 출신으로 원양어선 선원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어머니가 사모아 원주민인 자신을 0.5명의 한국인이라 부른 이유다. 그는 “세상

에 한국인 영주권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는 아마도 사모아뿐이지 않을까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가수 윤형주가 피지에 간 까닭은

김성인 제주대 교수는 2013~2018년 주 피지 한국대사로 일했다. 그는 당시 가수 윤형주 피지 초청사업을 벌였다. 윤형주 씨는 중학생 시절 어느 섬나라 민요를 좋아했고, 나중에 ‘우리들의 이야기’로 번안해 불렀다. 이 민요가 바로 피지의 ‘이사레이(Isa Lei)’다. 윤형주 씨의 피지 공연은 큰 호응 속에 열렸고, 양국 국민이 어깨동무를 한 채 ‘이사레이’를 열창했다. 김 교수는 “당시의 공연과 교류가 양국 관계를 급진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섬은 문화다양성의 보물창고

‘속절없이 그리운 날에는 섬으로 갔다.’는 강제윤 시인은 “우리는 섬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며 “섬을 자세히 공부하면 해양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섬에 대한 편견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인은 포럼에서 ‘섬은 문화다양성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신안과 한국 섬의 보물로 돌담, 전통 연희, 수호신, 음식문화 등을 꼽고 참석자들에게 그 매력을 어필했다.


☞ 사람-자연, ‘트리-히타-카라나’

“트리-히타-카라나(Tri Hita Karana)를 경험하는 여행을 해볼래요?” 구스데 나마루파 발리바둥 주 관광청장의 제안이다. 그에 따르면 발리에서 ‘트리-히타-카라나’는 ‘행복과 풍요는 신-사람-자연이 균형을 찾을 때 주어진다.’는 뜻이고, 발리 사람들은 이 말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발리 정부는 이 가치관을 담아 6개 지역에 마을 기반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신안산(産) 요리

포럼 첫날 저녁 만찬은 신안군의 신선한 농수산물로 차려졌다. 참가자들은 총 7가지로 구성된 코스요리를 맛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물김 살사의 생굴 세비체’ ‘자은도 양파 드레싱을 곁들인 신안 왕새우와 문어 냉채’ ‘섬초 해산물 잡채와 4찬 진지’ ‘말린 무화과 요거트와 녹차 티라미슈’ 등이 대표요리.

☞ 풍어굿과 발리 춤, 가야금의 어울림

포럼 첫날 이당금 무녀와 오새희 무희는 풍어굿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이윅고 바다’를 선보였다. 구스데 나마루파 발리바둥 주 관광청장은 발리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전통춤 한 대목을 선보였다. 이정표 가야금 싱어송라이터는 옛 가요 창법으로 ‘동백아가씨’ ‘목포의 눈물’ 등을 불렀다. 앵콜 요청에 이정표 가수는 나마루파 청장과 인도네시아 전통노래인 ‘Bengawan Solo’를 합창했다. 



섬문화의 공동번영 추구하는 '퍼플섬 의정서'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서 채택

포럼 참가국 대표들은 세계 섬문화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포럼 조직 위원회에서 제시한 '2022 퍼플섬 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체적 실무는 추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가닥을 잡기로 했다.

2022 퍼플섬 의정서 및 실천과제

첫째, 우리는 세계의 섬들이 이룩하고 계승해 온 섬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기 위해 '세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세계 섬문화를 창의적으로 소개할 장들을 마련한다.

둘째, 우리는 섬의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발전을 위해 섬과 섬지역에 최적화된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셋째, 우리는 기후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섬 지역들의 연대를 돕기 위해 '섬 기후변화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22 퍼플섬 의정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첫째, 신안군은 세계 섬문화 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세계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사무국을 설치한다.

둘째, 세계의 섬들이 이룩하고 계승해 온 섬문화와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기 위해,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세계 섬문화를 연 1회 이상 소개하고 펼칠 장을 만든다.

셋째, 기후위기에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섬지역들이 연대하여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섬 기후변화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을 준비한다.

신안1004몰 shinan1004mall.kr

1004섬 신안 싱싱 농수특산물! 알뜰 쇼핑 네 가지 방법



01



수시로 열리는 기획전 체크하기!

할인부터 배송료 무료까지 다양

02



후기 작성하고 포인트 받기!

포토리뷰 1,000원, 텍스트 리뷰 500원
50자 이상 포토리뷰 2,000원

03



매일 출석체크 하고 적립금 받기!

하루 출석할 때마다 적립금 200원
1달에 20일 출석하면 2,000원 추가

04



제철 특산물 '농치지 않을 거예요'

겨울 특산물은 섬초(신안 시금치), 곱창김
그밖에도 날마다 새로운 품목들이 짜잔~

*매월 이벤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푸짐한 혜택 챙기세요.

2023년 신안군정 행복을 만드는 여덟 가지 정책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량 군수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신안군은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2021년 신안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신안군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신안군 압해읍에 유치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전국 90여개 자치단체 중 4개 자치단체가 A등급을 받았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신안군이 A등급을 받아 2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 제24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국무총리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안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전라남

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신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해 신안군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신안군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생태환경 면에서 탁월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수려한 ‘섬마을’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결과입니다.

2023년 ‘살고 싶은 섬 신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민선7기에 이어 8기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화예술’로 품격 높은 신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읍면별로 특색있는 꽃과 나무가 한 계절도 빠지지 않고 피고 또 자라게 하여 ‘사계절 ‘꽃피는 섬 정원’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팜 조성, 자생식물 산업화, 개체굴 양식, 천일염 고급화 등을 통해 ‘고소득 신안’의 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넷째, 2022년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고, 철새도래지 국제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안군을 세계적인 ‘해양생태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통한 ‘햇빛연금’을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속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여섯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균등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어학연수 프로그램 재가동, 야간자율학

습 석식비 지원, 유학생 통학교통비 등의 지원을 통해 ‘명문교육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섬에서 교통은 복지이자 경제입니다. 여객선 공영제 및 야간운항, 작은섬도선공영제, 버스 공영제, 흑산공항의 조기착공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신안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안군민 여러분과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살고 싶은 섬, 군민이 행복한 섬 신안’을 만드는 데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2023년에도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04

신안군수 박우량 올림



나를 키운 고향
이제 내가 키운다!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기부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안이 아닌, 고향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면접수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고향 발전의 동력으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고향의 문화예술 시설 확충,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기부 문의	행정지원과 고향사랑팀 061-240-8248